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의 명옥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맥주는 독일이
원조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식 캠퍼스에서 배웠죠.

맥주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독일이 아닌 수메르 지방이었고

이집트에서도 발달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맥주의 원조가
독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독일을
맥주의 원조 국가로 만들어준

맥주순수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한 예능프로 <알쓸신잡>에서

독일의 맥주순수령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1516년의 독일의
바이에른 공국에서는

맥주는 보리, 물, 홉으로만
만들어야 한다는 법령을 공포했고

독일국민은 이 법령을 존중하며

자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죠.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지리시간이나 세계사시간에도
충분히 배운 것들인데요.

독일에는 맥주 종류가
6,000종 이상이고

각각의 작은 양조장이
각자의 문화를 지키고 있다는 것 등이

바로 대표적인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맥주순수령은 정말로
무조건 순수했을까요?

최근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맥주순수령이 무조건 순수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잃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법령이 공포된 이후로

철저히 지켜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맥주순수령 공포 시기는
1516년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독일 전체가 아닌

독일 내에 있었던
바이에른 공국의 법령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신성로마제국의
여러 제후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죠.

맥주순수령이 공포된 배경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맥주의 품질을 지키기 위함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당시에는 맥주 안에
들어가는 홉 이외에

중독 또는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성 재료, 구르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마신 사람이 죽거나 병에 들거나
또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것들이 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지금 우리가 마시는
맥주에 들어가는 홉은

환각이나 중독 작용은 당연히 없고

다양한 풍미를 가짐과 동시에
무엇보다 천연 살균작용을 해서

맥주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줬기에
대체원료로 뽑혔던 것이죠.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꼭 이 이유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당시 구르트라는
식물성 재료에 대해 전매권을 가진

교회와 영주라는
기득권층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전매권을 독점하여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했죠.

결국 구르트를 홉으로 바꾼 것은

기득권 싸움이라는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맥주순수령 이전에는 밀과
호밀로도 맥주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밀과 호밀의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주식인 밀 가격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빵업계와 양조장 간의
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결국 제빵은 밀이나 호밀로,
맥주는 보리로 만들기로 한 것이죠.

셋째, 귀족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리의 전매권을 당시에

바이에른 공국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보리가 선택된 배경도 있었죠.

그런데 바이에른 공국의 맥주순수령은

맥주의 주원료를 보리로 하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독일에는
수많은 밀 맥주가 있습니다.

바이스비어, 바이젠비어가
대표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맥주순수령에 위반된
이 맥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사실 주식인 밀로 만든 맥주는
특권층을 위한 제품이었습니다.

정작 맥주순수령을 내린
바이에른 공국에서도

귀족들이라든지 특권층은
아예 밀 맥주를 마실 수 있었죠.

나중에는 아예 밀 맥주
독점권까지 만들었고요.

결국 법령을 내린 지배계층이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평도 있을 정도입니다.

뮌헨을 중심으로 한
바이에른 공국의 맥주순수령이

독일 전체로 확 퍼진 것은

엄밀히 말하면 1871년
독일통일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각각의 지역에서
다양한 맥주를 만들었죠.

독일의 통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나라는 프로이센이었는데요.

19세기 초에는 나폴레옹을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시킨

최후의 전쟁 워털루 전투와

그 이후에 보불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등

독일의 크고 작은 국가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최고의 제상이자
전략가로 불리는

비스마르크가 있던 곳이
프로이센이었죠.

바이에른 왕국은 보불 전쟁 때

프로이센과 연합하여
프랑스에 대항했고

결과적으로 승전국의
이득권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프로이센은 독일제국이란
이름으로 통일을 추진하는데

바로 바이에른 왕국이
독일제국에 들어가면서

꼭 지켜 달라고 조건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맥주순수령이었죠.

이를 통해 통일 독일에서는
맥주순수령이 기초 법안으로 선택되고

대부분의 양조장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맥주를 빚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맥주순수령은
법률로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당시 EC 가맹국들,
지금은 EU죠.

그쪽에서 독일만 맥주의 원료를
한정한다는 것은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의회로 제소가 되죠.

이에 EC 측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987년 맥주순수령은
비합법화로 전환이 되고

법률로서 기능을 잃고
문화적 상징으로만 남게 됩니다.

다만 독일의 양조장들은 여전히
순수령을 따르는 곳이 많고

EU에서는 이 순수령을 따른 맥주가

독일 전통 맥주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술 빛을 때
곡물 종류를 제한했던

유사한 법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식인 쌀이 모자랄 때 나온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1965년도에 발령이 되었죠.

먹을 쌀, 또 먹을 보리가 부족하니

관련된 곡물로는
술을 빚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본격적으로 생겨난
막걸리가 하나 있죠.

바로 밀 막걸리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밀가루를
주원료로 한 막걸리로

대부분이 막걸리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이 밀 막걸리 맛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바이에른 공국의 맥주순수령 이후

밀 맥주는 특권층을 위한 존재였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나도 당연히

막걸리를 쌀로 빚는데요.

대통령 막걸리로 유명한
고양시의 배다리 막걸리는

당시 쌀로 술을 못 빚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었던 당시도

쌀로 막걸리를 빚어
청와대에 납품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청와대 감식과장과
협의를 맺고 통해서 보냈고

쌀도 늘 햅쌀로 빚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도 특권층을 위한
막걸리가 있었고

당시으로써는 그것이
쌀 막걸리였던 것이죠.

최근에 맥주순수령의 영향이 적었던
벨기에 맥주 및 크래프트 맥주가

전 세계적인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보리, 맥아, 홉 등
당연히 지켜야 했던 레시피가 아닌

틀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맥주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사용한 맥주는 물론
치킨을 넣은 맥주도 있고요.

마른 생선까지 넣은 맥주까지 등장했죠.

이것은 맛을 떠나서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는 것이 목적이요

또 틀을 깨보자는 새로운 세대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비자는 열광하고 있고

거대한 자본이 지배하는
논리에 통합되어 가고 있는

맥주 시장의 틈새를 노리면서

생각의 전환이란 콘셉트를 통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양곡관리법은
1990년 개정되면서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쌀로 술 빚는 것을
정식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쌀 막걸리가 등장하는데

2010년도 초반까지도
대부분이 수입쌀이었습니다.

최근에서야 국산쌀의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고

근 40년 동안
한국의 막걸리나 전통주 시장은

고부가가치 문화를 이루지 못한 채

저렴하고 단순한 주종으로 인식되는데
큰 몫을 합니다.

동시에 원료의 품미가 살아있는
증류소주 시장은 깡그리 사라지고

타피오카나 당밀로 빚은 희석소주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 한국은
저렴한 술이 대세인 나라가 돼버리고

좋은 술은 오직
외국의 술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만 연출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술은
바로 이 맥주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스파텐
독어로 읽으면 슈파텐이 됩니다.

즉, 독일의 맥주죠.

독일의 맥주인데 우리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축제가 있죠.

옥토버 페스트

옥토버 페스트의 시작을 알리는 술이
바로 이 슈파텐입니다.

독일에서 시작한
최초의 라거 맥주라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 맥주가 가진 품미와

그리고 달콤함이 같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판매하니까
꼭 한번 기회 되시면 맛을 보시고요.

독일 맥주가 가진 달달함과 고소함

그리고 풍미를 아마
같이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일의 맥주순수령이 결과적으로
독일을 맥주 종주국으로 만들어줬다면

한국의 양곡관리법은 우리 술의
다양성을 헤치고 획일화시켰으며

전통주에 대한 부가가치를
헤친 법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확실한 것은 법령 하나가

산업과 문화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맥주나 전통주를 떠나
법령 하나를 제정할 때

꼼꼼하게 따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